

# 학습코칭과 보상시스템의 융합적 운영이 학습공동체 참여 대학생들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학습성과에 미치는 효과

최경미<sup>1</sup>, 장기덕<sup>2\*</sup>

<sup>1</sup>김천대학교 교양학과 교수, <sup>2</sup>김천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 The effect of the convergent operation of learning coaching and reward system on learning community students' academic self-efficacy and learning outcome

Kyung-Mi Choi<sup>1</sup>, Kee-Duck Jang<sup>2\*</sup>

<sup>1</sup>Professor, Department of Liberal Arts and Science, Gimcheon University

<sup>2</sup>Professor,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Gimcheon University

요 약 학습코칭과 보상시스템의 융합적 운영이 대학생들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학습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2학기에는 학습코칭과 학습성과에 따른 보상시스템을 마련하여 사전 공지하고 그에 따른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고자 학습공동체 운영 전 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참여학생의 학습성향 진단하기 위해 G 대학 재학생에게 MLST-II 학습전략진단검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G대학 재학생은 학습동기와 결과기대가 낮고 정체형과 잠재형 학습자가 많아 학습공동체 참여 과정에서 학습코칭에 거부감을 느끼고 부정적인 결과를 예상하였지만 2학기 학습공동체 운영 결과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학습성과에 유의미한 향상을 나타내었다. 그러므로 부정적인 학습성향의 학생이라도 자율성에 맡기기 보다는 전문가의 학습코칭과 보상시스템이 학생들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학습성과에 긍정적인 결과를 야기하므로 교육 현장에서 이러한 융합적인 프로그램 운영방식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주제어 : 융합적 운영, 학습성향,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습코칭, 학습성과

Abstract The aim of this research is to find out how convergent operation of the learning coaching and compensation system affects the academic self-efficiency and learning performance of university students. In the second semester, a compensation system was prepared based on learning coaching and learning outcomes, made a notice in advance, and conducted a survey before and after operation to measure the academic self-efficacy. In addition, the MLST-II Learning Strategy Diagnosis Examination was conducted on G university students to diagnose the learning tendency. As a result, although G University students felt a reluctance by coaching the learning community and expected negative results during the course of participation in the learning community due to low motivation and low expectation of results, they showed a significant improvement in academic self-efficiency and learning outcomes. Therefore, even students with negative learning tendency will need to consider how to operate these programs in the educational field, as the expert's learning coaching and compensation systems produce positive results for students' academic self-efficiency and learning outcomes rather than leaving them to autonomy.

Key Words : Convergent operation, Learning tendency, Academic self-efficacy, Learning coaching, Learning outcome

\*This paper is based on the support of academic research at Gimcheon University in 2018

\*Corresponding Author : Kee-Duck Jang(brain0921@daum.net)

Received April 23, 2019

Revised June 3, 2019

Accepted July 20, 2019

Published July 28, 2019

## 1. 서론

4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대변되는 현대사회는 급변하고 다변화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으므로 인간은 지속적으로 학습하여 변화의 흐름에 적응해야만 한다. 이러한 사회현상에서 대표되는 단어가 융합이며, 융합을 간단히 정의하면 다른 것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는 것이다. 학습공동체(learning community)는 공통의 학습목표를 가진 개인들이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상호작용을 지속하면서 개인 및 공동체가 동시에 성장하는 학습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집단을 의미하고[1] 학습공동체 활동을 통해 참여 학생의 학업지속성, 학업적 성취, 지적능력 발달, 우수한 대학생활에 의미 있는 성과를 나타내고[2], 학습공동체 참여로 인한 구성원들의 자연스러운 지식 창조과 나눔은 개인능력과 역량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3].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으로 학습공동체는 개인의 능력이 모여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게 하고자 각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비교과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다수의 학생들이 동시에 참여하여 학습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학습경험과 성과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학습공동체의 기본적인 운영방식과 학습적인 이론을 배경으로 학습코칭과 보상체계의 융합적 운영을 실시하여 그 효과를 보고자 하였고 그러한 운영방법의 변화가 학생들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학습성취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지 않을까 생각하여 이 연구를 하게 되었다.

운영방법에 있어는 학습코칭과 보상시스템을 도입하고 학생들에게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여 학습관리를 하고자 디자인 된 것이며, 보상체계의 근거는 학습된 근면성 이론에 따라 외적 보상을 주었을 때 창의성과 내적인 동기가 향상되는 조건들을 설명하였다[4]. 이러한 점에서 학습공동체 참여 학생들의 학습성향을 고려하여 학습코칭과 보상시스템을 융합한 운영방식을 적용하여 학기별 학습공동체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학습성취를 조사하였다.

먼저 G대학 재학생의 학습성향을 파악하고자 MLST-II 학습전략진단검사를 실시하였으며[5], 이 결과를 바탕으로 2학기 학습공동체 운영에 적용하여 G대학에 적합한 학습공동체 모델을 찾고자 하였다. 검사 결과 G대학 재학생의 학습성향은 학습동기와 결과기대가 낮고 소극적인 학습자가 서울 및 수도권 대학 재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러한 부정적인 학습성향의 학습자들은 학습부진이 될 가능성을 높고 대학생활에 적응을 힘들어하여 학사경고를 받고 중도탈락으로 이어진다[6]. 이를 예방하고자 학습공동체 참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적합한

운영모델을 설계하여 적용할 필요성을 갖게 되었고 학기별 운영방식에 따른 학습공동체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학습성취를 비교하여 G대학 재학생에게 알맞는 학습공동체의 운영모델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 2. 이론적 배경

### 2.1 학습성향

학습성향은 학습자의 학습 습관과 패턴이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으며[7] 학습성향은 어디에서 학습이 일어나고 어떤 학습을 하는지 반영하는가에 대한 가치관과 관행[8]으로 정의하였다. 이들에 따르면, 학습한 내용과 방식에 대한 태도나 가치관이 생성되면, 그것이 일상생활로 흡수돼 경영행동을 인도하는 강력한 요소가 된다고 하였고, 그것은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의사결정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학습공동체의 적합한 모형을 찾기 위해 학습공동체 참여자의 객관적인 학습성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 2.2 학습코칭

학습코칭이란 학습(Learning)과 코칭(Coaching)의 합성어로 체계적으로 학습방법 및 공부습관을 관리하여 자기주도학습이 가능하며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학습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체계적인 관리형태를 말한다[9]. 또한 개인의 성격, 적성, 능력, 변인 등을 고려한 학습법으로 스스로 효율적으로 자신의 학습환경을 관리하면서 학습한다는 장점을 길러줄 수 있는 학습방법이다[10]. 학습코칭은 특히 학습동기가 낮은 학습자들의 경우 학습을 자율에 맡기기 보다는 보상체계를 마련하여 학생들의 내적동기를 강화하여 학습목표를 달성하도록 한 점에서 학생들의 내재적 동기를 유발하기 어려운 경우 외재적 보상의 제공이 내재적 동기를 촉발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한다[11].

### 2.3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적 자기효능감이란 학습자가 학업적 상황에서 과제 수행을 위한 필요 행위를 조직하고 실행하는 능력에 대한 판단이며 [12,13] 특수한 수행의 성취에 요구되는 활용을 실행 혹은 조직에 대한 신념으로 단순한 능력 획득이 아닌 다양한 환경에서 그에 대한 역량을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개인에 대한 믿음이다[14]. 자기효

능감은 활동에 대한 선택, 노력, 계속성과 같은 학업적 동기의 중요 변인에 영향을 준다.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습자는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는 학습자에 비해 학습에 대한 참여가 높으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더 많은 노력과 인내심을 보이며 직접 혹은 간접적인 학업적인 수행 내용에 영향을 나타낸다.[15].

### 2.4 학습 성과

학습성과는 교육적 활동의 결과로 획득되는 다양한 산출물을 포괄적으로 표현하며[16] 대학에서의 학습성과를 성과와 자료라는 종류를 기준으로 설명하였다[17]. Table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성과의 두 가지 종류는 인지적 성과와 정의적 성과이며, 자료의 두 종류는 심리적 자료와 행동적 자료이다. 여기서 행동적 자료는 가시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특성을 말하며, 심리적 자료의 경우 행동적 자료와 달리 비가시적이나 학습자가 획득하는 내면적 인지와 정서적인 특성을 의미하므로[16] 이 연구에서 학습성과는 측정할 수 있는 가시적 특성인 인지적 성과의 행동적 자료를 의미한다.

Table 1. Model of Learner's Outcome and Data Types

Data Types	Type of outcome	
	Cognitive outcome	Affective outcome
Psychological data	-Specific content knowledge -Academic ability -Critical thinking ability -Special ability -Academic achievement	-Value -Interest -Self concept -Attitude -Belief -Satisfaction
Behavioral data	-Degree acquisition -Professional achievement -Prizes and special recognition	-Leadership -Civic consciousness -Interpersonal relationship -Hobby and other job

## 3. 연구방법

### 3.1 연구대상

2017년 지방 소도시에 위치하고 있는 G대학교의 학습공동체를 대상으로 학기별 운영방식을 달리하여 학습코칭과 목표달성에 따른 보상시스템이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학습성공에 어떠한 영향을 나타내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 연구를 실시하였다.

학습공동체의 참여인원 수는 3~6명으로 1학기에는 13개 학과 38개 팀 155명의 학생이 참여하였고, 2학기

에는 11개학과 22개 팀 99명의 학생이 참여하였다. Table 2와 같이 보건계열 학생참여가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두 학기 모두 여학생의 비율이 남학생의 2배였고, 참여자 나이는 20~26세이며, 학년은 1학기 참여 학생은 1학년 8명, 2학년 17명, 3학년 52명, 4학년 78명이었고, 2학기 참여 학생은 1학년 27명, 2학년 8명, 3학년 25명, 4학년 39명이었다. 참여 학과의 구성 비율은 1학기에는 물리치료학과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의료경영학과, 간호학과, 유아교육학과 순이었으며, 2학기에는 간호학과가 가장 많이 참여하였고 다음으로는 유아교육학과, 사회복지학과, 의료경영학과 순이었다.

Table 2. The number of participation in learning community of the 1<sup>st</sup> and 2<sup>nd</sup> semester in 2017

Semester	Department	N	%
1st semester in 2017	Nursing Science	21	14
	Police Administration	1	0.6
	Physical Therapy	36	23
	Radiological Science	11	7.1
	Health Management	4	2.6
	Counseling Psychology	15	9.7
	Optometry	6	3.9
	English-Global Management	4	2.6
	Early Childhood Education	14	9
	Biomedical Laboratory Science	4	2.6
	Medical Management	31	20
	Occupational Therapy	4	2.6
	Dental Hygiene	4	2.6
	2nd semester in 2017	Nursing Science	25
Police Administration		4	4.04
Health Management		3	3.03
Social Welfare		12	12.1
Fire Protection Engineering		8	8.08
Optometry		4	4.04
English-Global Management		3	3.03
Early Childhood Education		21	21.2
Biomedical Laboratory Science		3	3.03
Medical Management		10	10.1
Occupational Therapy	6	6.06	

### 3.2 연구 설계 및 도구

2017학년도 1, 2학기 학습공동체는 2016학년도 ACE 성과발표 대학의 모델을 참고하였다[18,19]. 1학기에는 대학생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하였고 2학기에는 MLST-II 학습진략진단검사 결과[5]를 근거로 교육학 전공 교원의 학습코칭과 목표달성에 대한 보상을 마련하여 학습공동체를 운영하였다.

학습성과 분석에는 목표달성계획서, 주차별 보고서, 중간 및 최종보고서, 성찰보고서, 소감문, 운영 전 후 설문지, 만족도 조사, 학습성과 증빙자료를 사용하였다.

Table 3. Question number and Reliability coefficient (Cronbach's  $\alpha$ ) of Academic Efficacy

Subfactor	Question number	Amount	Reliability coefficient
Preference for task difficulty	1,4*,7*,10,13,16*,19*,22,25,28	10	.83
Self-control Efficacy	2,3,6,9,12,15,18,21,24,27	10	.78
Confidence	5*,8*,11*,14*,17*,20*,23*,26*	8	.84
Total		28	.65

\*Reverse

목표달성계획서를 통해 대학생들의 관심분야 및 학습 목표를 알 수 있었고, 최종보고서 및 소감문, 성찰보고서를 통해 목표달성에 대한 학습성과와 운영방식을 조사할 수 있었다. 또한, 학습공동체 운영 전 후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동일한 설문지를 사용하여 학기별 운영방식에 따른 변화를 관찰 수 있었고, SNS, 이메일 및 방문상담을 통해 학습코칭을 실시하였다.

### 3.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이 연구에서는 학습공동체 운영방식에 따른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학습성과를 알아보려 경상북도 소도시에 있는 G대학교를 대상으로 2017년 1, 2학기 학습공동체의 운영사례를 비교 분석하였다. 자료수집을 위해 목표달성의 보상여부와 학습코칭 외에 운영기간, 보고서의 종류는 동일하게 하였다. 학생들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학습성과를 확인하고자 학업적 자기효능감 설문지를 활용하였다[20]. 이 설문지는 28개 문항의 6점 Likert 척도로 “전혀 아니다”에서 “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다. 1~6점 사이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과제 난이도 선호도가 .83 자기조절 효능감이 .78, 자신감이 .84이었으며, 본 연구의 Cronbach's  $\alpha$ 는 전체 .65로 Table 3과 같다. 설문지 문항에 역채점 문항을 포함시켜 학생들이 주의 깊게 설문내용을 파악하고 응답 하도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응답결과는 Window용 SPSS 20.0을 이용하여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대한 점수를 산출하였고 1, 2학기 학습공동체의 동질성 및 학업적 자기효능감 차이를 비교하고자 독립표본 t-test를 이용하였다.

## 4. 연구결과

### 4.1 G대학 학습공동체 학기별 운영절차 비교

G대학 학습공동체는 학기 시작과 함께 학습공동체 운영을 공문으로 전 학과에 공지하고, 공통의 목표를 가진 3~6명의 대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팀을 구성하여 전자메일을 통해 신청하였다. 참여명단이 확정되면, 약 1주일 후 학습공동체 설명회를 통해 주차별 보고서, 성찰보고서, 소감문, 출석부, 지원금 사용방법을 공지하고, 교수학습지원센터의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 양식을 안내하였다.

1학기 학습공동체는 대학생들의 자율적 운영을 중심으로 하고, 우수학습공동체의 선정은 보고서를 수합하여 평가하였다. 2학기에는 동일한 운영기간에 목표달성에 대한 보상체계를 사전 공지하여 외적보상에 따른 내적동기를 강화하여 학생들의 역량개발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또한 학습상담과 학습동기 저하를 막고자 SNS, 이메일 및 방문상담으로 학습코칭을 하였다. 이러한 운영의 근거는 MLST-II의 학습전략진단검사 결과를 참고하였다.

2학기 학습공동체는 목표달성과 보상체계를 사전 공지하는 과정에서 참여에 부담을 느낀 학생들의 신청포기 사례가 많아 1학기 참여 학생 수인 155명에서 99명으로 약 30%가 감소하였다.

### 4.2 G대학의 학습공동체 학기별 운영결과 비교

#### 4.2.1 G대학 학습공동체의 운영방식 차이에 따른 학업적 자기효능감 비교

G대학 2017학년도 1학기 학습공동체는 제출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우수학습공동체 선정하였고 2학기는 1학기과 같이 보고서 평가와 함께 목표달성 여부에 대한 평가도 있었다[21]. 목표달성계획서의 내용을 기반으로 학습성과를 파악하여 학생들의 진로와 취업에 도움이 되고, 재학생의 학습성향에 적합한 학습공동체 모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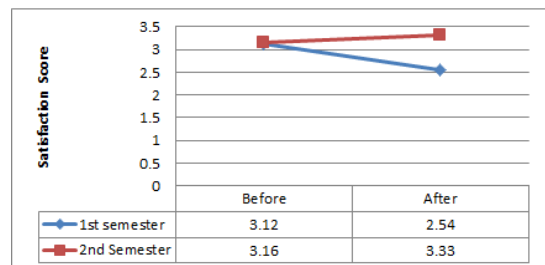


Fig. 1. Comparison before and after the academic self-efficacy of the learning community

Table 4. Difference in academic self-efficacy before and after the operation of the learning community for the first and second semester of 2017

Before and after the operation of the learning community		Levene's Test for Equality of Variances		T-test for Equality of Means			
		F	Sig.	t	df	Sig. (2-tailed)	Mean Difference
Before	Equal variances assumed	.01	.91	-.45	54	.65	-.04
	Equal variances not assumed			-.45	53.98	.65	-.04
After	Equal variances assumed	1.05	.31	-9.26	54	.00	-.79
	Equal variances not assumed			-9.26	50.16	.00	-.79

2017학년도 학습공동체의 운영방식을 달리 구성하고 운영 전 후 동일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G대학 학습공동체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평균을 학기별로 살펴보았다. 운영 전에는 1학기 3.12점, 2학기 3.16점을 보였으나, 학습공동체 운영 후에는 1학기 2.54점으로 오히려 크게 감소하였고, 2학기에는 3.33점으로 0.17점이 증가하는 성과를 보여주었다.

또한 학기별 두 집단의 동질성을 알아보기로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Table 4와 같이 Levene's test를

통한 1, 2학기 학습공동체의 등분산 검정 유의확률이 운영 전후 0.91과 0.31로  $P>0.05$ 로 영가설을 채택하므로 두 분산은 같고 또한 등분산이 되었다는 가정 하에 두 집단의 P값이 0.65이므로 두 집단의 차이는 없었으나, 운영 후에는 P값이 0.00이므로 두 집단의 차이와 학습공동체 참여자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매우 달랐다.

#### 4.2.2 G대학 학습공동체의 운영방식 차이에 따른 학습성과 비교

2017년 1학기 G대학의 우수학습공동체의 선정은 주 차별 보고서와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 소감문, 성찰보고서를 토대로 평가되었고, 소감문을 통해 “친목도모의 장 혹은 학습경험의 기회”를 성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2학기 우수학습공동체는 운영 전 설정한 목표의 달성여부가 중요하게 평가되었다. Table 5는 1, 2학기 학습성과를 보여주며 두 학기의 학습목표는 유사하였으나 학습성과는 2학기에만 나타났고, 2학기 참여학생의 약 30%가 목표를 달성하였고 학습활동에 만족감을 보였지만, 그렇지 못한 학생의 경우 “약간의 좌절감을 느꼈다”는 의견을 소감문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이렇게 학습공동체 참여 학생들의 학습성향을 고려한 학습코칭과 목표달성에 대한 보상시스템은 내적동기를 향상시키고 이로 인해 학습성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Comparison of the educational outcome of the first and second semester in 2017

Semester Outcome	Frist semester in 2017	Second semester in 2017
Comparison of study go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Preparing for the exam of the accident</li> <li>-Obtaining a third-degree certificate for the youth</li> <li>-Study about ABO, NCLE &amp; Medical term</li> <li>-Acquiring a Korean History Certificate</li> <li>-TOEIC score improvement</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Obtaining certificates of qualification as an insurance auditor</li> <li>-Best prize in the mock class competition</li> <li>-Pass for the nurse's national examination</li> <li>-Acquire top level 6 in English composition in ETS Criterion</li> <li>-Improvement in grades C+→ B+, C+→A+</li> </ul>
Comparison of educational outcome	Noth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0:53(4 members): Pass for the nurse's national examination</li> <li>-Nuri(4 members): Best prize in the mock class competition</li> <li>-Treasure box(6 members): Improvement in grades</li> <li>-Sales3(3 members): Acquire top level6 in English composition ETS Criterion</li> <li>-Chungramjae(4 members): Improvement in grades</li> <li>-GaranBbubbu(3 members): Improvement in grades</li> <li>-Ingc(3 members): Obtaining certificates of qualification as an insurance auditor</li> <li>-OTSG(3 members): Improvement in grades</li> <li>-Bisang(5 members): Improvement in grades</li> <li>-Up&amp;Up Toaic1: exemplary operation of learning communities</li> <li>-Up&amp;Up Toaic2: exemplary operation of learning communities</li> <li>-Human Behavior &amp; Social Environment: Improvement in grades</li> </ul>

## 5. 결론 및 시사점

2017학년도 G대학 학습공동체 참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습코칭과 보상시스템의 융합적 운영이 부정적 학습성향의 학습공동체 참여자들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학습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G대학 1학기 학습공동체는 참여학생의 자율성에 중점을 두어 운영하였고 2학기에는 학습코칭과 목표달성에 대한 보상시스템이 융합적으로 운영되었다. 이러한 운영적 차이는 MLST-II 학습전략진단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였다. G대학 재학생의 학습성향은 학습동기, 성실성, 결과기대, 효능감은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대학생들보다 상대적으로 낮았고, 잠재형과 정체형 학습자들이 58%로 과반수가 넘었으며 성실형의 비율은 9%로 서울 및 수도권 대학 재학생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조사되었다[5].

이러한 부정적인 학습성향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1학기에서 실시한 학습공동체는 친목도모와 참여율에서는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주었으나,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습공동체 운영 전 3.12점에서 운영 후 2.54점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2학기 학습공동체는 목표달성에 대한 보상시스템을 선 공지하여 학습자의 내적동기를 강화하였고, 학습코칭을 통해 학습동기가 저해되는 것을 막고자 하였다. 이러한 운영방식은 참여자들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운영 전 3.16점에서 운영 후 3.33점으로 향상시켰고, 학습성과도 크게 개선되었다. 이는 학습코칭이 자기주도학습에 있어 학업적 자기효능감 향상에 효과가 있다[6,21]는 연구와 일치한다. 학습동기가 낮은 학습자들에게 학습을 자율에 맡기기 보다는 보상을 주어 내적동기를 강화하여 학습목표를 달성하게 유도한 점은 내적동기를 유발하기 힘든 학생들의 경우 외적보상이 내적동기를 촉발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6,22]는 결과와 같다. 이는 G대학 학습공동체 참여 학생들에게 보상을 주어 내적동기를 강화시켜 학습성과를 향상시키는 의미있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즉, 강화된 내적동기가 학습공동체 참여 학생들에게 공통의 목표를 위해 격려와 지지를 통해 지식을 상호 교류함으로써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학습성과를 향상시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러므로 향후 학교 현장에서도 일률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아닌 참여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융합적인 프로그램 운영방식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이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부정적 학습성향인 학생들에게 학습코칭과 보상시스템이 학습공동체의 참여를 주저하게 만든 요인으로 작용하였다는 점과 참여 포기가 이탈한 후 남은 학생들은 이미 학습준비도가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부분이 이미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학습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은 앞으로 연구로 다루어져야 한다. 또한 부정적 학습성향의 학생들에게 학습코칭과 보상시스템 외에도 공동체가 주는 심리적 지지가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 개인학습과 비교하여 다루어져야 하므로 이러한 점은 후속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REFERENCES

- [1] M. H. Kang & B. N. Lim. (2002). *Learning in the Age of Lifelong Learning : a school preparing for the future*. Seoul : Hakjisa.
- [2] C. M. Zhao & G. D. Kuh. (2004). Adding value : Learning communities and student engagement. *Research in Higher Education*, 45(2), 115-138.
- [3] H. J. Lee & J. S. Kang. (2005). A Study on the Operation of Learning Community for Effective Knowledge Management.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Policy Science*, 9, 1-23.
- [4] Eisenberger, R. (1992). Learned industriousness. *Psychological Review*, 99(2), 248-267.
- [5] Insight. (2017). *MLST-II Gimcheon University Learning Strategy Examination*.
- [6] S. E. Nam. (2017). *A Study on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Coaching Program for College Student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of Soongsil University.
- [7] N. Y. Park. (2004). Learning tendency Change and Influence Factors. *Personnel Organization Research*, 12(2), 35-75.
- [8] Nevis, E.C. & Dibella, A. J.(1995). Understanding organizations as Learning Systems. *Sloan Management Review*, Winter: 73-85.
- [9] K. Y. Kang. (2008). *A child-changing coaching theory*. Seoul : Todam media.
- [10] S. H. Park & E. K. Kang & M. H. Oh. (2017). The Effects of Learning Coaching on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nd Academic Achievement in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Growth and Development*, 25(3), 315-319.
- [11] E. S. Jung & K. M. Lee. (2018). The effect of monetary rewards on the intrinsic motivation of performance criteria. *A Study on Learner-Oriented Textbook Education*, 18(2). 737-762.
- [12]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2), 191-215.
- [13] S. J. Kang & E. J. Kim & H. J. Shin. (2016).

Convergence Study about Problem-based Learning and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Problem Solving Skills, Academic Self-efficacy, Motivation toward Learning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7(2), 33-41.

- [14] A. Bandura, (1993). Perceived self efficacy in cognitive development and functioning. *Educational Psychologist*, 28(2), 117-148.
- [15] Zimmerman, B. J.(2000). Self-efficacy: An essential motive to learn.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25, 82-91.
- [16] S. Y. Kim. (2014).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University Students on Learning Performance and Effective Teaching Methods. *Journal of Lifelong Learning Society*, 10(1), 59-82.
- [17] Austin, A. (1993). *Assessment for excellence*. The Oryx Press.
- [18]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2017). *Center for Teaching and Learning 2016 Annual Report*.
- [19] Hannam University. (2017). *Center for Teaching and Learning 2016 Annual Report*.
- [20] C. H. Lee. (2013). *Th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Self-Effectiveness, Academic Emotions and Academic Achievements: Controlled Mediation of Social Support*.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of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 [21] Gimcheon University. (2017) Learning Community Report.
- [22] T. Y. Park & M. H. Do. (2015). *The Effect of Self-guided Learning Coaching Program on Academic Self-efficac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of Namseoul University, Cheonan.
- [23] E. S. Jung & K. M. Lee. (2018). The effect of monetary rewards on the intrinsic motivation of performance criteria. *A Study on Learner-Oriented Textbook Education*, 18(2). 737-762.

장 기 덕(Kee-Duck Jang)

[장학원]



- 2006년 2월 :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교육상담석사)
- 2011년 2월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육학과(교육상담박사)
- 2012년 8월 ~ 2016년 2월(이전) : 영진전문대학 유아교육과 교수
- 2016년 3월 ~ 현재 : 김천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 관심분야 : 상담, 아동보육, 브레인짐
- E-Mail : 20160016@gimcheon.ac.kr

최 경 미(Kyung-Mi Choi)

[장학원]



- 2008년 8월 : 국립안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학과 (교육학석사)
- 2017년 2월 : 경북대학교 일반대학원 영어교육과 (교육학박사수료)
- 2018년 4월 ~ 현재 : 김천대학교 교양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영어교육, 영어학, 영문학,

영어회화

- E-Mail : 20180053@gimcheon.ac.kr